광주 온 민주통합당 대권주자 정세균 상임고문

"DJ 정신 이을 野후보 뽑아야"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상임고문은 3일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는 21세기판 김대중 대 박정희 대결 구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이날 광주를 방문해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 대선 후보로 박근혜 후보가 확실한 만큼 야권 후보 중 김대중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출마 배경과 각오는.

▲이번 대선은 5년짜리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30년을 준비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도록 하는 유능한 후보를 뽑는 중차대한 선

'호남 필패론' 들먹이는 건 시대변화 모르는 생각

거다. 따라서 현 대한민국의 위기를 관리·극복하고, 위기를 희망으로 만드는 역량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당과 국회, 정부, 노사정위원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온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경험을 헛되이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잘 쓰이는 것이 국민에 보은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대선 출마를 하게 됐다.

-현재 당내 대선 주자들에 비해 지지도가 낮은 편이다. 극복방안은.

▲인기나 대세로 대선구도를 보는 정치공학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다와야 한다. 정세균은 민주당의 역사다. 지금까지 한 번도 곁눈질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선당 후사했고, 지방선거를 승리하는 성과도 만들어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시대정신에 있다고 본다. 그 시대정신은 유능한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국민이 선택할 것이다.

-야권 내에서도 '호남 필패(必敗)론'이 있다.

▲20년 전부터 호남 후보는 안 된다는 '호남 필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시대변화를 모르는 것이다. 지난 4·11 총선에서 영남과 호남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와 새누리당 후보가 40%의 득표율을 얻는 등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호남 필패'를 들먹이는 것은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잘못된 생각을 깨야한다. 이런 말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

-대표적인 슬로건과 공약은.

▲대한민국을 편안한 나라로 만들겠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애를 낳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보육비·사교육비 등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애를 낳지 못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개인과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사교육을 근절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한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리고, 더 큰 민주주의를 만들 것이다. 경제 민주화, 사회 민주화를 비롯한 계층 간 문화적 격차를 줄이는 문화 민주주의를 만들 것이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 구도를 어떻게 보나.

▲박근혜 후보와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면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대판 김대중 대 박정희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야당의 후보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으로부터 모두 지지를 받는 후보가 선출

정권교체 기여할 중요 자산 안철수원장 흠집내기 안돼

되어야 한다.

-안철수 원장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자존심이 상한다. 당내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안철수 원장 얘기만 되풀이 돼 답답하다. 가급적 안 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안 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든 표출됐기 때문에 이제는 안 원장에 대한 흠집 내기, 여론몰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형태로든 정권교체에 기여해야 할 민주개혁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3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어르신들에게 식사 전 손 소독 봉사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MB 멘토·왕차관 이어 '상왕'까지…

최측근 3인방 중수부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출입문 앞에 그어진 '포토라인'에 섰다. 공교롭게도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불과 얼마 전 고개를 떨궜던 바로 그 자리다.

이 전 의원은 앞서 두 사람이 조사받았던 대검청사 11층의 중수부 조사실로 직행했다.

이로써 현 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불려온 이들 3인방이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거쳐 가는 운명을 맞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상왕'으로까지 불린 이 전 의원의 소환으로 검찰의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반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임을 공언한 MB 정부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역시 심화할 전망이다.

현 정부의 개국 공신인 3인방의 몰락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인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서 비롯됐다.

지난 4월 중순 하이마트 선종구(65) 회장 일가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관련 첩보를 입수한 중수부는 그달 25일 최시중 전 위원장을 소환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 동시에 박영준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칼을 빼들었다.

소환조사 하루 만에 최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한 중수부는 5월18일 알선수재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왕 차관'으로 불린 박 전 차관과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 전 위원장을 사법처리한 검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상득 전 의원을 전격 소환 조사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의 구명로비,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의 공천헌금, 저축은행 비리 첩보 등 각종 의혹으로 내사를 받으며 끊임없이 이름이 오르내렸음에도 검찰 출석만은 피하고 있던 이 전 의원에게 마침내 소환 통보가 날아간 것이다.

그동안 변죽만 울리며 전전긍긍하던 검찰이 수개월에 걸친 내사 끝에 그를 불러들일 만한 물증을 찾아낸 것이다.

검찰은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7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 전 의원에게 6억원 안팎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임 회장의 진술뿐 아니라 관련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의 사무실 여직원 계좌에서 나온 7억원과 이 전 의원이 사장으로 있던 코오롱 측에서 비공식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1억5000만원도 이 전 의원을 압박하는 무기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해보고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필요한 게 없으면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 전 의원의 사법처리 절차가 의외로 빨리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 특사단 여수 파견

성김 대사·커틀러 대표보 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엑스포)'를 축하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키로 했다고 백악관이 2일(현지시각)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여수엑스포의 미국의 날(7월 4일)을 맞아 제인 루브첸코 국립해양대기청(NOAA) 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특사단을 파견한다"고 설명했다.

특사단에는 이밖에 성김 주한 미국대사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애덤 에렐리 국무부 교육·문화 담당 수석 부차관보, 한국계 영화배우 대니얼 대 킴(한국 이름 김대현)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여수선언' 지지 서명 2만명 돌파

해양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여수세계박람회 유산으로 남을 '여수선언'의 지지서명 참여자가 2만명을 돌파했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석)에 따르면 '여수선언' 지지서명 참여자가 지난 2일 2만명을 돌파했다.

서명운동은 박람회가 폐막하는 8월12일까지 계속되며, 온라인과 박람회장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박람회장 내에서는 엑스포홀 입구에서 받고 있고, 스마트폰(QR코드)을 이용한 참여도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는 여수선언 포럼 초대장과 기념품, 해양 관련 도서 등을 증정한다.

여수선언은 오는 8월 12일 폐막식 날 열리는 '여수선언 포럼'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포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반기문 UN사무총장, 유엔 산하 해양 및 환경 관련 국제기구 사무총장들을 비롯한 전 세계 해양전문가,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오늘의 여수엑스포

지난 5월 24일 이후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박람회의 공식 창작공연 '바다의 소녀가 해상무대에 다시 올랐다.

8월 10일까지 매일 저녁 7시25분부터 박람회장 빅오 해상무대에서 열린다.

△국가의 날-미국
△지자체의 날-해남군(지자체관·오후 7시30분)
△상문살 물리기 굿(해양공원·오후 8시30분)
△댄싱히어로(천막극장·오후 2시)
△팝페스티벌-부활(특설무대·오후 8시)
△DJ댄스쇼(특설무대·밤 9시30분)

△어제의 관람객 수=4만9542명(이하 3일 오후 6시 현재)
△누적관람객 수=273만4680명

ASSET KOREA since 2005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농성동[원룸]	영암삼호[근린시설]	화순도곡 [병원적합]	전주우아동[나이트]	신안동[스포츠타운]	치평동[유흥주점]	중흥동[병원적합]
대299m2,건456m2	대777m2,건1152m2	대3234m2,건4280m2	대1794m2,건3968m2	대3026m2,건5984m2	대164m2,944m2	대2075m2,건12510m2
감정가 4억6천	감정가 9억2천	감정가 42억3천	감정가 47억4천	감정가 69억3천	감정가 19억8천	감정가 124억7천
최저가 3억2천	최저가 4억1천	최저가 15억1천	최저가 24억	최저가 24억8천	최저가 12억7천	최저가 44억7천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금동[목욕탕] ☜	☞ 대전[웨딩홀] ☜	☞ 광주 쌍암동(유흥시설) ☜	☞ 담양금성(공장)☜
▷대지 91평 ▷건물 303평 ▷감정가격 10억 ▷매매가격 4억7천(협의후결정)	▷대지 958평 ▷건물 5346평 ▷감정가격 222억9천 ▷매매가격 128억(협의후결정)	▷대지 1520평 ▷건물944평 ▷감정가 89억7천 ▷매매가 40억 (협의후결정)	▷대지 1482평 ▷건물 299평 ▷감정가 7억 1600만 ▷매매가 5억 (협의후결정)
☞용봉동[하미스포렉스] ☜	☞ 울산울주(숯가마) ☜	☞ 전북완주 봉동 공장 ☜	☞ 순천 조례동(주차빌딩) ☜
▷대지 4076평 ▷건물 12943평 ▷감정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대지 2455평 ▷건물 445평 ▷감정가 18억2천 ▷매매가 9억 (협의후결정)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감정가 135억 ▷매매가 80억분할가능(협의후결정)	▷대지 646평 ▷건물 1708평 ▷감정가 43억 ▷매매가 18억2천(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종원이사 010-8227-7759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 매매
▶운천저수지 건너편 명지아파트 옆 737평
▶A필지 도시형생활주택(29평형) 20세대 건축허가필
▶B필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타입)48세대 건축허가가능
▶매매가 14억5천만원 010-7570-7525
아파트/빌라 박미란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 광주대앞(지하)호프,분식60평원룸형빌라(산수동,백운동)5칸, 계림동 E마트1층1칸
대출 +보증금공제후 실인수가 1천만원 (H.010-6654-6888)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첨단 신창동 신가동 상가건물
파실분환영!
(8억~12억계약가능)
《매수자 대기중!》
광주원룸매매
원룸 파실분 대환영!
(매수자 다수 대기중)
《사실분도 문의환영》
(수익률 높은 원룸 많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토지매매
파실분 → 빠른 계약가능!
사실분 → 원하는 땅 구해드림!
우림공인중개사
일곡지구 중심상가 밀집지역내 위치
010-3622-6076
062)576-8484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 가(매매)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1,200만원(38억) 보증금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1,730만원(21억)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707만원(14억5천만)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 두암동7층건물 164평 건물약600평(31억) 임대보증금 약5억 월1,500만원
토 지(매매)
■ (상무지구)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흥가능,식당영업중)
■ (상무지구)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번화가 사거리코너)
■ (상무지구)1,980㎡(600평)-평당1,200만원(상무지구) (유흥가능)
■ (상무지구)3,400㎡(약1,000평) 평당750만원(시청앞) (회사사옥,오피스텔등 적합)
■ (동림지구)준주거지 운암~하남간대로변)4,470㎡(약1,352평) - 평당330만 (예식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핸 011-609-5221
(상무지구 이바돔 감자탕 1층)